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나를 나답게 하는 것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다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민이 필요 없다. '착하다'라는 단어다. 형용사 '착하다'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뜻이다. 유의어로는 '상냥하다', '순하다', '순탄하다', 반의어로는 '악하다', '흉악하다', '악랄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나다움'에 대한 물음표는 "여범쌤, 여범쌤은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 고마워"라는 짧은 대화다. 처음 들었을 때는, '착하다'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로 다가왔기에 단순한 나의 뇌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못했다. 그저 사전적인 뜻풀이처럼, '착하다'는 개념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다'는 나름의 개념 정리 때문이었다.

문제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라고 했다. 방탄소년단관의 멤버와 결혼할 것이라며 늘 애교를 보이던 연경이가 멀리서 달려와 "우리 반 다음 시간 국어예요, 기대할게요~ 여범쌤은 착하세요?"라며 하트를 날발한다. '뭐야, 자식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보여 달라는 거 아냐? 2차 고사도 끝나고 방학이 멀지 않았으니…….'라는 생각이 눈앞을 질주한다.

혹여, 아이들이 생각하는 '착하다'는 의미와 나의 시각이 다른 것을 아닐까? 의문부호에 의문부호가 늘어나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급기야, 나의 뇌는 빠르게 회전하여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문제 삼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잘 받아주는 교사'라는 의미까지 확대하여 해석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자, 불쾌한 감정이 팍 올라왔다. 그래서 잠시 복도에 서서 물끄러미 교실을 향해 콧노래를 부르는 많은 아이를 바라다보았다.

이처럼, 나는 38살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평교사로 부임했다. 지금은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지리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시골 중학교의 새내기 교감이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황순원의 〈소나기〉에 등장하는 순수한 소년, 소녀가 교감이라는 어색한 발음은 무시하고 '여범쌤은 착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여범쌤이세요' 라며 깔깔거리는 힘이 나는 학교다. 녀석들은 여전히 '여범쌤은 착하세요(?)'에서 나름 '서로에 서로다움'을 눈빛으로 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구촌을 대혼란으로 몰고 간 '코로나 19'에도 '착한 여범쌤'과 손가락 하트를 날발하던 녀석들은 '서로를 서로답게' 만들어 주는 2020년 새 학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개학은 연기되고 원격입학과 개학이라는 사이버 세상을 통해 평교사에서 교감이라는 어색한 호칭으로 녀석들을 비대면했다. 산더미 같은 공문에 치여 원격수업 준비와 방역,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지침은 3월에 나에게 배달된 선물이었다.

'나다움'은 시인으로 평론가로 수필가로 여유와 발맞춤이다.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아프고 야속하다. '나를 나답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 없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다움'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숨을 돌리고 4월을 맞이할 무렵, 느닷없이 교육청 특정감사를 알리는 전화를 받고, "억 뭐야?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어찌어찌 감사를 마무리하고 5월 말 3학년을 시작으로 2학년 1학년이 6월 초에 모두 학교에 오게 되었다.

7월의 막바지다. 천둥소리가 요란하고 교정은 시험으로 조용하다. 장맛비가 멈출 줄 모르고 쏟아붓는다. 2층에서 바라본 매내천은 온통 황톳빛이다. 평상시 졸졸 실개천이었던 그가 거대한 강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돌다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 하나도 불안하다. 강물이 범람할 지경이다.

> 투덜투덜 잰걸음으로
> 가락가락 걷다 보니 시험감독 시간
> 후다닥 정신을 부여잡고 주위를
> 둘러보니, 이름 모를 수학 공식
> 무덤에 휘말려 써 내려간
> 문제 풀이는 엇갈려 돌아가고
> 오늘도 호올로 나다움을 찾아
> 마중 나가면
> 수많은 물음표가 별이 되어
> 하늘을 수놓는다.
> -박여범, '나다움' 전문-

2교시 시험은 수학이다. 녀석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선택형 문제는 끄적끄적 풀어간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볼펜을 내려놓는다. 그런데 녀석은 너무나 편해 보였다. 그래도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없어 바라만 보았다. 시험지 한 번 보고 한숨 쉬고, 창밖을 한 번 바라보고를 반복하는 녀석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 아이가 아파할 시간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음에 가슴이 미여왔다.

시험도 결국은 성장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과 싸움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슬퍼졌다. 내가 녀석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험감독이 부족하여 교장, 교감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교실 현장은 평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랑의 장소와는 거리가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교감이라는 지위를 통해 나답게 녀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나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녀석을 어쩌면 편안하게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초,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 그룹의 흐름에 녹아드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주변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아내는 것 그 어는 것에도 나다움, 나답게 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도 자연이라는 거대 무시한 흐름 속에 나다움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사회적 지배 속에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

너무 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앞서가지도 않는 진정한 나다움,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있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발아래에 있는 나다움을 찾아내고 즐기고 미래가 존재하기는 할까? 지금이 바로 '나다움'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아닐까?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은 있는 것일까? 수많은 물음표가 별이 되어 하늘을 수놓는다.

독자제언

소리 없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물리적 학교폭력이 전부였던 예전과는 달리 SNS와 모바일 메신저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SNS 계정에 경쟁하듯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정보를 업로드하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하고 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 괴롭힘)의 합성어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뜻한다.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또는 복수심에서 특정인 상대로 별다른 이유없이 재미로 시작한다. 가해자들은 친구들끼리 짓궂은 장난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집에서 24시간 동안 학교폭력의 고통에 시달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사이버불링' 대처법으로 피해 학생은 폭력 상황을 나타내는 화면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즉각적으로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나 국번없이 117또는 112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만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학교폭력과 더불어 이제는 사이버 세계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시현진 장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 설

친환경 수소버스 전주 시내를 달린다

친환경 수소버스가 전주시내를 달린다는 소식이다.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현대차가 전주시에 전달하는 '1호차 전달식'의 사진도 기사와 함께 올라와 있는데 경사라고 할만하다. 송천동 공판장과 양묘장을 오가는 103번 코스에 투입된다는데 그 달리는 모습을 어서 빨리 보고싶다. 국내에서 수소시내버스가 시범사업으로 운행된 적은 있으나 구조 개선 등 성능의 시험을 거쳐 완성된 수소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이다.

저번에 국내 최대의 수소 충전소가 준공되었다는 소식이 다시 생각나는 지금이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발 소식이 그것이다. 한 시간에 22대의 수소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니 그 기능이 대단하다고 반응했던 게 생각난다. 그때 완주의 수소 충전소 준공식의 자리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송성환 도의회의장, 금한송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운집한 것은 그래서였을 터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 시내를 수소버스가 달리게 됐으니 전주와 완주가 윈윈게임을 하듯 함께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게 확실하다.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 전북도는 발전의 밝은 소식을 계속 들려주어야 한다. 그 밝은 소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다익선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처럼 지역 발전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음을 완주군의 수소충전소 준공과 전주시의 수소버스 운행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우리의 현안이 다른 지자체의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보는 지난날 여러 번 말한 게 있다.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라서 말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제 군산형 일자리로 수소자동차 생산 작업을 서두르자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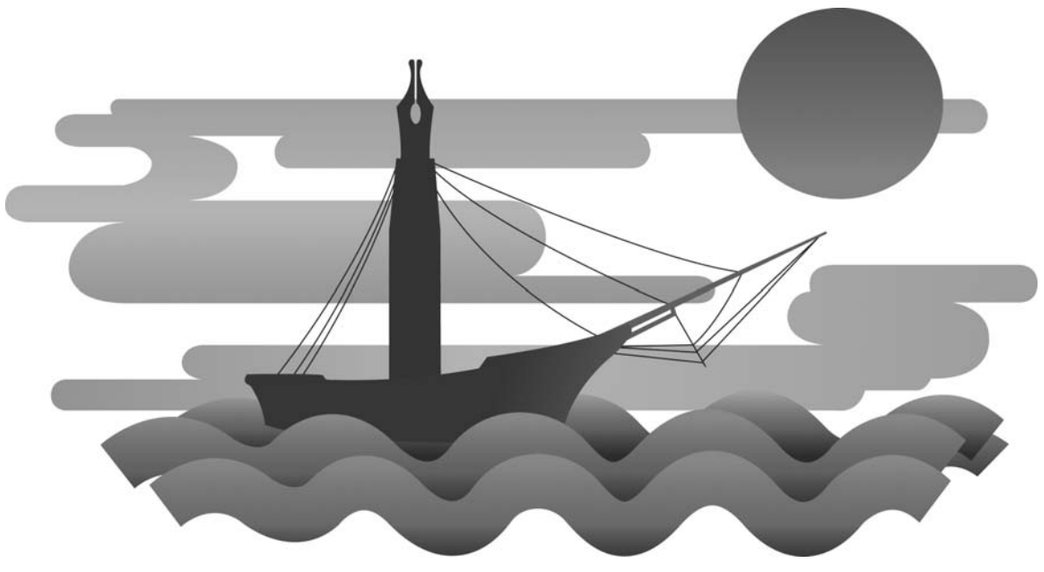
전북 발전은 내년 예산 8조원대 확보로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전에 돌입하고 있어 그 성과가 어떨지 기대가 된다. 예산 확보는 말 그대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와 관련해 올 연말에 승전보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승전보는 8조원대를 확보하는 액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수년간 8조원 밑에서 턱걸이 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도민들은 올해 예산보다 5천 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 확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발전은 예산 증액 확보가 답이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에 여러가지 해법이 있지만 역시나 최상책은 증액된 예산이다.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열망이 뜨겁다 해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 그동안 전북의 경우 예산의 증가라는 게 물가 인상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예전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줘야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여러차례 말한 바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나서서 이쪽의 관심사를 정부 부처에 줄기차게 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도내 여러 기관들과 정보 교류를 확실히 해두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이며 새만금 순환 도로며 신공항 건설이며 내부 개발 사업 등 그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줘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일거리는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도민에게 여러 차례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 다 빈약한 예산으로는 지역 발전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함을 안기고 있는 세월이다. 전북도는 8조원 예산 돌파를 위해 더욱 힘차게 뛰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